

卷頭辭（其一）

昔鄒孟氏有言曰堯舜之道孝弟而已孝弟之於人其所關顧不大歟我恩津之宋自判院事府君道學名節磊落相望冕芾鍾鼎蟬聯奕爲大東華胄而夷攷其實惟以孝弟爲本繩繩不匱此豈非後承之可法者乎旣欲其法非文獻無以攷世德之懿矣於是親睦會諸宗相與謀議蒐輯先世及各派始祖文字而附以墓圖又附其餘群賢之可法文字與旌閭亭舍碑文及儀禮之緊要家庭者翻譯國文彙成一部鈔諸棗梨展而讀之孝弟之心油然而生矣嗚呼盛哉雖然此心之生即作善之幾也乘此幾而存此心先世之明訓是佩先世之美規是蹈夙夜孜孜使數百年家法勿替引之則庶無大過而終不愧爲堯舜之徒矣盍相勉旃焉

己未（檀紀四三二二年）六月 日

判院事府君二十三世孫 元彬謹識

卷 頭 辭 (其二)

人類의 歷史가 오래되었다. 다아윈의 進化論을 이어 받은 英國의 學者의 發表에 依하면 黃色人種의 歷史는 三十五億年이요 白色人種의 그것은 二十七億年이요 黑人種의 歷史는 七億年이라고 한다. 多年間의 研究에 依하여 어떤 資料에 根據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先人들의 遺産에 依한 資料를 基準으로 할 때 明確히 따질 수 있는 歷史는 不過 四、五千年이다. 그 동안 社會生活을 營爲하는 데 있어 또는 家族生活을 營爲하는 데 있어 國家觀과 人生觀과 倫理觀이 形成되는 것은 當然한 理致다.

우리 歷史도 亦是 四、五千年의 悠久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記錄에 依하여 따질 수 있는 歷史는 二千年程度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佛敎와 儒敎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特히 李朝五百年에 있어서는 우리의 歷史는 곧 儒敎의 歷史다. 우리들의 先祖들은 仁義를 배우고 또 그것을 實踐하는 것을 最高의 目標로 삼았다. 仁義를 爲하여는 몸도 바치고 生命도 바쳤다. 仁義를 行하는 根本은 忠과 孝다. 밖에 나가서는 나라와 임금을 爲하여 몸을 바치고 들어와서는 父母를 위하여 마음을 다 할 줄 알았다. 이것이 人間이 人間인 所以며 動物과 다른 所以다. 動物에게 무슨 仁義가 있으며 무슨 忠孝心이 있겠는가. 이것이 數千年을 내려 오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所重한 遺産이 되었다.

우리 恩宋을 世上에서 名門大家라고 말한다. 그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다름아니다. 우

리의 先祖들이 모두 仁과 義를 위하여 가장 힘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朝廷에 나가서 벼슬을 하게 되면 地位의 高下를 莫論하고 나라를 위하여 盡心竭力하였다. 富貴를 貪하여 거기에 汲汲하는 일이 없었다. 滅死奉公이 있을 따름이었다. 官을 떠나서 居家하여서는 父母를 받드는 데 마음을 다하고 몸을 바쳤다. 또 아내는 奉君子의 道理에 있어 心力을 다하였다. 그러했기 때문에 忠·孝·烈에 대하여 國家에서 褒彰받은 것이 十八旌閭二復戶에 達하였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또 道德과 學問面에 있어서 살펴보면 가장 聖賢의 學問을 徹底히 工夫하고 實踐하여 大賢이 되어 文廟에 配享된 어른이 두 어른이나 계시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一家門에서 文廟配享이 一人씩 輩出한 家門은 光山金氏와 우리 恩宋뿐이다. 一人도 어려운 일인데 二人씩 輩出하였으니 말이다. 後孫이 모두 그 精神을 이어 받아 學問과 道德으로 經筵官(世子師傅)이 된 어른이 十二名이나 되니 亦是 우리 나라에서 最高數字다. 經筵官은 우리 恩宋의 獨占物처럼 되었다. 또 文廟配享이나 經筵官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聖賢의 學問을 一平生 동안 怠慢히 하지 않고 努力한 어른들은 그 數交를 이로 다 셀 수 없을 程度다.

나는 이러한 事實을 자랑하기 爲하여 羅列하는 것이 아니다. 遺憾스런게도 日本에게 千秋에 씻을 수 없는 百六의 悲運을 당하여 우리들이 國民으로서 또는 아들로서 行해야 할 道理를 抹殺當하고 오직 植民地政策에 順從하는 것만을 強要당하는 동안 이 所重한 遺訓이 거의 抹殺되고 말았다. 그러나 日本은 오히려 다 같이 儒敎圈內에 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精神이 一脈相通하는 點이 있었다. 그러나 二次世界大戰後에 물밀듯 닦쳐 오는 歐美風潮는 우리의 精神文

化를 송두리째 뽑아 버렸다。勿論 物質文明에 있어서는刮目할 만한發展을 가지고 왔다。從來의 貧困을拂拭하고華麗하고 豐饒한 生活을 갖다 주었다。大端히 흐뭇한 일이다。그러나 우리의 所 重한 精神文化의 喪失은 무엇으로 回復할 수 있을 것인가。인제 우리도 過渡期에서 反省期에 들어섰다。政府에서도 忠孝를 教育에 反映하도록 努力하고 있다。多幸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 時點에 있어서 우리 精神을 되찾는 데 있어 豊富한 資料를 保有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先祖들의 行蹟이다。그러나 그 貴重한 事蹟이 모두 漢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靑少年 들은 읽을 수가 없다。今般 恩津宋氏大同親睦會에서 이 點에 깊이 느낀 바 있어 第一次的으로 派 始祖까지의 事蹟을 國文으로 翻譯하고 아울러 先代墓所·齋室·遺蹟 등의 寫眞 및 其他 必要한 附錄을 添加하여 一卷의 書籍을 編纂하니 後孫들을 크게 興起시킬 것이라고 믿고 기쁜 마음을 禁할 수 없다。

己未(西紀一九七九年) 六月 日

判院事府君二十三代孫 鎮百謹識

發刊辭

悠久한 人類의 歷史에는 文化史·民族史 그리고 그 血統을 整理、體系化하여 記錄한 族譜가 있습니다。우리 固有의 崇祖愛族과 民族正統의 美風良俗을 여기에서 考徵하고 찾아볼 수 있으며 未來를 開拓하는데 過去를 回顧치 않을 수 없고 後孫을 教養하는데 또한 祖上의 遺訓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니 過去의 文獻이 後人을 爲하여 考徵의 影響을 주는 힘은 實로 큰 것이며, 더구나 先代祖上의 거룩한 事蹟과 빛난 遺訓을 子孫이 알지 못한다면 이는 밝지 못한 일이요 이를 後孫에게 傳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욱 어질지 못한 일이 될진대 우리는 이나라 大姓望族으로서 오직 大義만을 삶의 길로 삼고 忠誠과 孝道로써 나라에 盡心竭力하였고 家道를 바로 잡아온 先代祖上들의 훌륭한 精神遺産이 千秋不滅의 燈불이 되어 爛燦하게 비추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부터 내려오는 族譜를 爲始하여 많은 文獻이 山積되어 있음에도 그 內容이 純漢文으로 되어 있어 擧皆의 子孫들이 그 뜻을 解得할 수 없는 實情인 것입니다。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先代祖上들의 높은 忠誠心과 百折不屈의 崇義精神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 속에 脈脈히 傳해 오고 있으며 時代가 바뀐 오늘날일수록 더욱 그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오늘날 눈부신 經濟發展은 오랜 歲月의 貧困과 落後를 脫皮하고 豐饒한 地上樂園을 이루어 가고 있지만, 이를 더욱 빛내야 할 精神秩序의 協同이 未洽하다는 點 누구나 共感일 것이며 一部 物質萬能의 拜金

思想과 我欲我執의 暴力亂舞는 東洋 本來의 儒敎精神과 西洋 十七世紀의 禁慾的 淸敎主義를 너
무도 無色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先代祖上들의 偉訓遺蹟을 全子孫이 다 같이 배
우고 알아서 祖上들의 가르치심이 그 무엇이었으며 또 子孫으로서 해야 할 道理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認識하고 社會發展과 國家隆盛에 더욱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一次로 各派
始祖까지를 限度로 하여 全國에 있는 先代의 墓所·齋室·遺跡·書院의 寫眞을 넣고 先世事蹟과 遺
訓을 한글로 번역하고 附錄으로 一般常識資料까지도 많이 收錄하여 이 冊子를 發刊하는 것이니
全宗親들에게 빠짐없이 널리 普及되어 子孫萬代에 傳해지는 聖스럽고 所重한 家寶가 되고 또
올바른 子孫敎育에 指針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 冊子가 完成 된데까지의 動機
와 經路를 略述하면 一九七七年 一月에 宗親 몇몇 분들의 協議로 發端되어 同年 三月까지의 사
이에는 大宗中幹部陣을 爲始하여 各界 各層의 中堅地位 宗親 近二百餘名을 尋訪하여 大田大德
親睦會 組織의 趣旨文에 贊同署名을 받고 三月 二十七日에 親睦會(大田 大德支會)를 組織한 以
來 每月 月例會를 開催하면서 그後 六個月間 大田 大德居住 宗親들의 職場과 家庭을 一一히 尋
訪하여 住所錄을 作成, 協議連絡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 基盤이 되어 서로가 배우고 알아야겠다
는 矜持와 信念을 갖도록 되었고 이 冊子 發刊에 對한 趣旨案內文을 全國諸宗들에게 계속 配布
周知하여 이에 對한 絶對的인 贊同과 呼應下에 一九七八年 五月 六日 定期總會에서는 支會를
本會(大同親睦會)로 統合함에 이르렀고 이 事業에 對한 大大的인 贊同과 自發的인 贊助意識이
날로 높아져서 많은 財政確保에까지 이르렀으며 계속하여 數 많은 諸宗들의 아낌없는 聲援下에

이事業이 歷史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其間 文獻錄을 編纂하여 이事業에 資料를 提供하여 주신 宋鎮道氏、先世事蹟과 遺訓을 中等學生이나 閭閻婦人이라도 다 읽을 수 있는 쉬운 글로 流麗한 筆體를 驅使하여 우리 말로 옮겨 놓고 印刷 校正等 事業全般에 걸쳐 長時日間 不徹晝夜 努力하면서도 無報酬로 犧牲하여 주신 宋恪憲氏、敎職의 餘暇를 活用하여 全國各地의 寫眞을 自費로 負擔하여 주신 宋容緯氏、大田 大德地方의 寫眞을 無料로 撮影 提供하여 주신 宋大憲氏、親睦會事務室을 無料로 長期間 協助 또는 喜捨하여 주신 宋錫泰氏、宋昌永氏、그리고 冊子 印刷費의 切半以上을 無期限 無利子로 立替와 아울러 最高金額을 贊助하여 주신 宋在恪氏、巨額을 贊助하여 주신 宋興燮氏、宋昌濂氏、其外 많은 金額을 贊助하여 주신 二百餘 諸宗、京鄉各地에서 聲援을 다 해주신 많은 諸宗、全宗中任員、親睦會全任員、그리고 이事業의 發起初부터 主動이 되어 支會組織에 對한 贊同署名活動、住所錄作成、이 冊子 發刊、親睦會事務室運營等 全般에 걸쳐 總務役割로서 近三年間 아무런 報酬도 없이 初志一貫 努力하여 주신 宋珍用氏等 數 많은 諸宗들에게 거듭 甚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冊子 印刷에 있어서 여러가지 隘路와 難關을 克服、理解하시고 極力協助하여 주신 譜典出版社의 宋呈用氏、社長 李相洙氏外 全職員들에게 無限한 感謝를 드립니다. 모처럼 集大成한 이 冊子에 依하여 서로가 많이 배우고 알아서 더욱 親睦團結하고 많은 發展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今般編輯에 있어서 여러가지 未洽한 點과 不備된 事項이 많을 것이오나 짧은 期間 微弱한 財政으로 오직 誠과 熱을 다하였

을 따름이오니 諸宗들의 넓으신 雅量으로 寬容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 二次文化
事業 進行에 있어서도 倍加的 指導鞭撻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己未(西紀一九七九年) 六月 日

判院事府君二十五世孫 大同親睦會長 範燮謹識